



## [IDF 동향] IDF-GDP, ‘낙농업의 중요성’ 재차 강조

### - 영양공급은 물론, 사회, 경제 및 환경적 역할 강조

IDF와 GDP가 UN FSS(푸드시스템 정상회의)를 통해 세계 식량안보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있어 낙농업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온 가운데, 오는 9월 23일 개최되는 정상회의를 앞두고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먼저 낙농업은 지속가능한 생산 시스템을 통한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유제품 공급을 통해 기아근절, 빈곤 종식 및 양성평등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동물성과 식물성 식품은 경쟁상대가 아닌 조화로운 섭취를 통해 건강은 물론 사회, 경제 및 환경적으로도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설명했다.

또한, 영양소가 풍부한 유제품은 전 세계 인류의 영양과 건강을 위해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영양 및 건강에 있어 우유 및 유제품의 중요한 역할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가 많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학교우유급식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전역 약 1억 6천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이번 UN FSS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하며 평등한 세계 식품 시스템에서 낙농업과 유제품의 역할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출처 : IDF 본부, 9월 16일자 >

## [마케팅] 英 낙농 및 육류업계, ‘Eat Balanced’ 캠페인 동참

### - 자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유제품과 육류 섭취의 중요성 강조 및 신뢰도 제고 도모



영국에서 균형 잡힌 식단에서의 유제품과 육류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한 ‘Eat Balanced’ 캠페인이 재개된 가운데, 농가들도 함께 동참하고 나섰다.

최근 한 연구를 통해 생산자들이 직접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에 더 효율적이라는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이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농업원예개발공사(AHDB)는 낙농 및 육류업계 종사자 100명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제품 및 육류의 건강학적 효능은 물론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먼저 유제품과 육류는 채식식단에서는 섭취할 수 없는 천연 비타민 B12를 함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동영상 등을 통해 농가들의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균형 잡힌 식단에서 유제품과 육류의 중요성은 물론 농가들의 노력과 헌신을 보여줄 계획이다. < 출처 : farminguk.com, 9월 14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